보도시점 바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2026. 11. 3.(화)

# 한국수자원공사, “댐주변지역 농가의 정성을 담아 나눔의 온기를 더해요”

- 11월 3일 대전 본사서 ‘이음장날’ 직거래 장터 열어 대면 판로 지원
- 온라인 특별 기획전·할인 쿠폰 연계로 전 국민 가치 소비 동참 확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1월 3일 대전 본사에서 댐주변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장날’을 개최했다.

이번 장터는 댐주변지역 농가가 정성껏 생산한 농특산물을 함께 나누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가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전국 18개 댐 주변 20개 지자체의 27개 농가가 직접 참여해 130여 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선보였다. 임직원들은 생산자와 직접 마주하며 청정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는 등 따뜻한 동행에 뜻을 모았다.

직거래 장터를 통한 상생 노력은 사내 대면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온라인 판로로 확장되고 있다. 공사는 전용 모바일 앱인 ‘로컬 바이브’의 ‘로컬마켓’을 통해 지난 10월 15일부터 2주간 이어온 댐주변지역 농특산물 이음장날 특별 기획전을 11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전국 댐주변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기획전 참여 농가의 판매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기 위해 자체 할인 쿠폰을 행사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인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구매 장벽을 낮추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열고 있다. 공사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상생 모델을 안착시켜 지역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더욱 견고

히 다져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이번 장터에서 약 2,700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했으며, 이를 남강댐, 합천댐, 소양강댐 등 댐 노인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이다. 댐주변지역의 땀방울이 담긴 수확물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온정을 전함으로써, 직거래를 통한 농가 판로 지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는 지역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정성껏 준비한 이번 장터가 댐주변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이웃에게는 따뜻한 나눔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온라인 기획전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전국 어디서나 우수한 댐 주변 농특산물을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농가 자립을 뒷받침하는 현장 장터 등 판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3매(별첨).  끝.


| 담당 부서 | 수자원기획처<br>수자원경영안전부 | 책임자 | 부 장 | 김성훈 (042-629-3101) |
|---|---|---|---|---|
| | | 담당자 | 차 장 | 김유주 (042-629-31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관련 사진**




[사진] 1. 11월 3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음장날에서 공사 직원들이 댐주변지역 농가의 농특산물(시금치)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는 직거래 장터 '이음장날'을 개최했다.
이번 장터는 댐주변지역 농가가 정성껏 생산한 농특산물을 함께 나누고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가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2. 11월 3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음장날에서 공사 직원들이 댐주변지역 농가의 농특산물(율무)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3. 11월 3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이음장날에서 공사 직원들이 댐주변지역 농가의 농특산물(사과)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